

濟州方言 接續文의 時制에 관한 一考*

康 貞 姬

1. 본 논문익 기본 출발점은 ‘국어에 과연 時制가 없다면... 어떤 문장이 나타내는 事件의 시간적 先後관계가 어떻게 感知되느냐’(남기심 1968:90-91)하는 의문에 대한 풀이의 한 방법으로 言語外的 조건과 pragmatics의 개입문제를 제시한 ‘이른바 國語時制의 基準時點問題에 對하여’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시제의 存在與否를 논하기에 앞서 이 시제체계와 한국어라는 同一言語圈내의 특수 지역어인 濟州方言에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는 데 그 기본 목적을 둔다.

2. 연구대상. 제1차적인 대상으로 接續接尾辭(접속어미, 연결어미)들 중에서 동작의 연속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接尾辭를 중심으로 한다.

표준어	—다가	—어(어)서	—고자	*인용접미사 ¹	—면서	—(으)니까
A 형	—단	—안(언)	—젠	—덴, —랜, —엔...	×	—(으)난
B 형	—당	—앙(영)	—젠 (—고징)	—덴, —랜, —엔...	—멍	×

위의 동작연속접미사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동작연속’의 의미자질이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후행동작이나 상태와의 先後관계 파악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3. 문제점. 위의 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각 형태소가 공통적으로 지나고 있는 —ㄴ과 —ㅇ이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서 A형과 B형의 뚜렷한 대립쌍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ㄴ/—ㅇ의 대립은 과연 무엇에 대한 대립인가.

필자는 우선 이들의 대립을 相으로서 보자는 時制상의 대립으로 보고자 하며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4. 가설 및 예증

4. 1 가설 I : 濟州方言 言衆들은 이들 동작의 연속接尾辭들의 時制를 [+past]로 인지하고 있으며 —ㄴ이 배합된 동작이나 상태를 [+past], —ㅇ이 배합된 동작이나 상태를 [-past]로 연결이 대립시켜서 使用한다.

* 이 논문은 1978년 12월 10일 수원 말씀의 집에서 열린 제5회 국어학회에서 발표했던 ‘제주방언 접속접미사의 時制에 관한 試論’을 資料 중심으로 보완, 수정한 논문임. 接續文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남기심(1978: 68-70).

¹ 본고에서는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이들의 통사론적인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할 시제문제는 後稿로 미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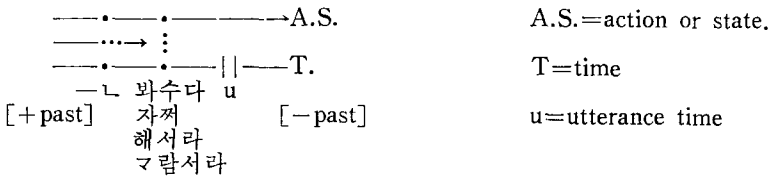
위의 가설의 [+past]와 [-past]의 分類基準時點은 화자의 發話時를 ‘현재’(the time of utterance being ‘now’)로 하고자 하는 言衆(Lyons 1968:305)들의 공통적인 개인시간(personal time)에 準한다.

4.2 가설 I의 예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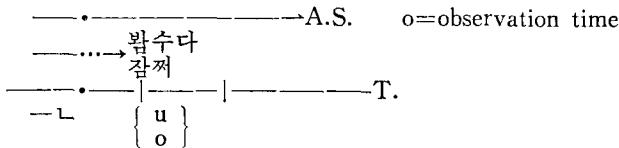
4.2.1. -ㄴ의 用法 (A형)

- 1) ① 왔 봐수다. (와서 보았습니다.)
 ② 와 봤수다. (// 와서 보고 있습니다.)
 *③ 와 보라. (// 보아라.)
- 2) ① 놀 달 자찌. (놀다가 잤다.)
 ② 놀 달 잠찌. (놀다가 자고 있다.)
 *③ 놀 달 자쿠다. (놀다가 자겠습니다.)
- 3) ① 먹 쟈 해서라. (먹고자 했더라.)
 ② 먹 쟈 램찌. (먹고자 하고 있다.)
 ③ 먹 쟈 후쿠다. (먹고자 하겠습니다.)
- 4) ① 무시거^ㄴ엎 ㄴ 램서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더라.)
 ② 무시거^ㄴ엎 ㄴ 램수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③ 무시거^ㄴ엎 ㄴ 르라. (무엇이라고 말하여라.)

1)~4)에서, 話者의 發話時 현재 ①은 이미 완료되었거나 계속되었던 동작이고 ②는 아직 지속(계속)되고 있는 동작이다. 그러나 ③은 현재에서부터 앞으로 행하여질 동작이다. 각 例의 ①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위와 같이 發話時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을 [+past], 오른쪽을 [-past]로 한다면 -ㄴ은 [+past]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②의 例들을 그려보자.



위의 그림은 發話時를 순간으로서가 아니라 시간의 幅을 가진 영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필자의 견해로 發話時를 확대시킨 것이다. 위의 예들은 후행동작·상태를 話者 자신의 發話時와 觀察時를 동일하게 잡은 例로서 선행동작·상태는 후행동작·상태가 있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속된다. 이들 역시 [+past]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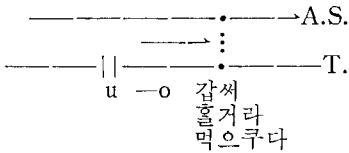
이와같이 ①②들은 문법적인 문장이 되지만 ③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찰을 위해서 ㄴ의 대립형인 ㄹ의 用法을 알아보자.

4.2.2. ㄹ의 用法 (B형)

- 1) *① 오랑 구경ᄃᆞᆫ당 가수다. (와서 구경하다가 갔읍니다.)
- *② 오랑 구경ᄃᆞᆫ당 감수다. (와서 구경하다가 가고 있습니다.)
- ③ 오랑 구경ᄃᆞᆫ당 감썸. (와서 구경하다가 가십시오.)
- 2) *① 가ᄃᆞᆫ 햄ᄃᆞᆫ데다. (가고자 하고 있음테다.)
- ②? 가ᄃᆞᆫ 햄수다.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 ③ ᄃᆞᆫᄃᆞᆫ 햄ᄃᆞᆫᄃᆞᆫ. (말하면 가려고 할 것이다.)
- 3) ①* 피기 잡ᄃᆞᆫ 먹어썸. (고기를 잡아서 먹었다.)
- ②? 피기 잡ᄃᆞᆫ 먹어ᄃᆞᆫ. (고기를 잡아서 먹고있다.)
- ③ 피기 잡ᄃᆞᆫ 먹으쿠다. (고기를 잡아서 먹겠습니다.)

2), 3)의 ②를 제외하고는 4.2.1의 例와는 반대로 ①이 비문법적인 발화임에 반해서 ③은 문법적인 발화이다. 그것은 1)~3)의 ③이 각각 명령, 앞으로 일어날 동작·상태에 대한 추측, 의도법의 문장으로서 이들 문장의 의미자질 시제상으로 [+미래]를 지니므로 -ㄹ이 [-past]라는 것은 예견가능하다.

이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상에서 A형의 ㄴ과 B형의 ㄹ의 대립이 話者의 發話時를 중심으로하는 時制上的 대립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은 물론 4.2.1과 4.2.2의 例에서 본 바와 같이 先行節의 時制와 後行節의 時制가 서로 호응(agreement)한다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가설을 추출할 수 있다.

4.3. 가설 II : [+past]인 先行節은 後行節이 그의 동작·상태의 종류에 관계없이 [+past]를 요한다.

가설 III : [-past]인 先行節은 後行節이 그의 동작이나 상태의 종류에 관계없이 [-past]를 요한다.

4.4 가설 II의 예증. 이제 4.2.1과 4.2.2에서 증명된 것을 토대로 해서 2의 표에 따라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살펴 보기로 하자.

² 이 문제는 5.1에서 설명할 것임.

1) —단

- ㉠ 냇又디만 ㄹ만이 아쟈단 돌아와수다. (냇가에만 가만히 앉았다가 돌아 왔습니다.)
 ㉡ 상을 들러단 그 피긴 움작 들러먹어비수다. (상을 들어다가 그 고기를 모두 먹어버렸읍니다.)
 ㉢ 가단 쉬엄서라. (가다가 쉬고 있더라.)
 ㉣ 쇠 츠지레 멩기단 보난 늦어실거우다. (소 찾으러 다니다가 보니까 늦었을 것입니다.)

2) —안(언)

- ㉠ 징심때가 돌아와 밥을 먹젠 아쟈는다. (점심 때가 돌아와서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 꼴아두언 어딜산다 가부난. (말해 두고서 어디도인지 가버리니까.)
 ㉢ 쇠 심언 갑십테다. (소를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 문박 설렘 가시키어. (모두 챙겨서 갔겠다.)

3) —젠

- ㉠ 각시 엇지젠 ㄹ란 가수께. (씩씩 얼어주려고 데리고 갔지요.)
 ㉡ 문 꼴아불젠 해신디. (모두 말해버리려고 했는데.)
 ㉢ 가젠 일어섬서라. (가려고 일어서고 있더라.)
 ㉣ 가젠 햅시크라. (가려고 하고 있을 거야.)

1), 2)의 ㉠, ㉡과 3)의 ㉠은 話者와 동작주가 동일한 경우로서 後行節의 동작이 發話時 이전에 이미 완료되어있으며, 1)~3)의 ㉢은 동작주의 동작을 관찰한 관찰자가 話者 자신인 회상문으로서 이때의 後行節의 動作相은 미완료이다.

또한 ㉢들은 동작주와 話者가 동일하지 않은 문장으로서 話者가 동작주의 동작·상태를 추측하는 예이며 1), 2)의 ㉢은 완료, 3)은 未完了相이다. 3)의 ㉣은 話者 자신의 앞으로 행할 동작에 대한 의도를 나타낸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後行節의 動作相과는 전혀 관계없이 先行節의 時制 표지가 [+past]이면 後行節의 時制도 [+past]임을 알 수 있다.

4.5 가설 III의 예증

1) —당

- ㉠ 일하당 갑싸. (일하다가 가십시오.)
 ㉡ 가당 놀암시라. (가다가 놀고 있어라.)
 ㉢ 옷당 육먹나. (옷다가 육먹는다.)
 ㉣ 영 살당 죽주. (이렇게 살다가 죽지.)

2) —앙(영)

- ㉠ 산이 강 낭굴 행 오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오너라.)
 ㉡ 강 소중기 벗영 아자시라. (가서 속옷 벗어서 앉아 있어라.)
 ㉢ 멧이영 ㄹ랑 ㄹ랑 읊니가. (무엇이라고 말해서 데리고 올까요.)
 ㉣ 방 그산을 팡 띄겨볼개. (봐서 그산(묘)을 파서 던져 버리자.)

3) —쟁(—고정)

- ㉠ 들르쨌 해도 안 들리질거라.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을 걸.)
- ㉡ 마르민 가고쨌 한다. (말하면 가고자 한다.)
- ㉢ 온 쨌쨌 흥는다. (모두 말하고자 하는데.)

1)의 ㉠, ㉡은 명령, ㉢, ㉣은 話者의 추측, 그러나 ㉤은 話者의 의도를 내포하는 二重性을 지니고 있다.

2)의 ㉠, ㉡ 역시 명령, ㉢은 話者 자신의 앞으로 행할 동작에 대한 의문, ㉣은 청유문이다. 다음, 3)의 ㉠, ㉡은 추측, ㉢은 의도이다. 1)의 ㉡과 2)의 ㉣의 後行動作相이 완료 대미완료의 대립을 보이긴 하나 이들 動作相과는 관계없이 접속문의 先行節의 時制가 모두 미래시이다.

따라서 본 方言接續文의 時制는 先行節의 時制 표지가 있는 후에 後行節의 時制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後行節의 時制에 의해서 先行節의 時制를 결정한다면 時制를 규정지을 수 있는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이 문제는 앞으로 다루게 될 예외적인 현상들의 설명에서 이해되리라 본다.

5. 4에서 [+past]/[-past]의 규칙적인 대립현상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자연언어란 매우 복잡하여서 규칙(rule)으로 묶을 수 있는 현상만큼이나 불규칙적인 현상도 많다. 그러나 이 불규칙적인 현상을 잘 분석해 보면 강하지는 않지만 다소간의 규칙성을 일어 낼 수도 있다.

그 예 중의 일부로서 본 연구의 대상인 接尾辭들에서 발견되는데, 첫째는 A형과 B형이 어느 時點에서 혼용되고 있으며 둘째는 A형이 시간 전 영역에 걸쳐서 사용되며 셋째는 시간적 이유를 나타내는 -(으)난의 확대 使用例이다.

5.1. A형과 B형의 혼용

- | | | |
|---------------------------------------|--------------------------|-------------------------|
| 1) ㉠ 잡안 }
㉡ 잡앙 } 감수다. | 2) ㉠ 가젠 }
㉡ 가쟁 } 램수다. | 3) ㉠ 가렌 }
㉡ 가령 } 밀렵져 |
| 4) ㉠ 얼뎡 }
㉡ 얼뎡 } 마람찌 | 5) { ㉠ 감신계
{ ㉡ 감싱계 | 6) { ㉠ 먹어싱계
{ ㉡ 먹어싱계 |
| 7) { ㉠ 어멍 신디 가령 흥민
{ ㉡ 어멍 신디 가령 흥민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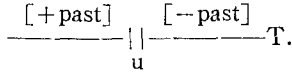
위의 예들은 4.2.2의 ㉡들과 같은 경우인데 1)~4)는 후행동작·상태가 發話時 현재 이미 지속 또는 진행되고 있었으며 5), 6)은 후행동작·상태의 觀察時와 發話時가 同一時點이며 7)은 發話時 현재 앞으로 행해질 동작에 관한 가정법의 문장이다.

이와같이 1)~7)이 4)의 규칙을 무시할 채 본 方言 言衆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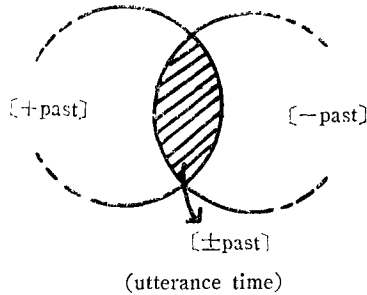
필자는 이에 대한 해답으로서 인간 개인의 심리적 시간(psychological time) 개념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현상으로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개인 시간(personal time) 개념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時區間(time interval)에 대한 판단이 시간 또는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Bull 1968:4-14). 따라서 發話時를 ‘현재’라고 할 때의 ‘현재’는 Otto Jespersen이 설정한 객관적인 자연시간의 O(Zero)의 점으로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 幅을 지닌 영역을 말한다. 이때 話者가 先行動作과 後行動作, 또는 動作時와 發話時間의 時間上의 위치(거리)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時制의 변동이 생기게 된다.

1)~7)의 例에서도 ㉠은 先行動作과 後行動作과의 時區間을 ㉡보다 좀 길게 인지했을 뿐, 時間의 幅을 가진 發話時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이들의 혼용은 發話時 領域內에서의 先行動作과 後行動作의 時區間의 차이에서 온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方言言衆들의 時間 개념을 그림과 함께 파악해 보면



로 분류하는 일차적 선형(linearity)이라기 보다는



과 같이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持續性無限型(durative infiniteness)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 A형의 확대 사용

- 1) 가당 오당 { 들며수다.(들렸읍니다.)
 { 들립네다.(들립니다.)
 { 들리라.(들려라.)
- 2) 오명 { 보암서라.(보고 있더라.)
 { 보아수다.
 { 뵈수다.(보고 있습니다.)
 { 보라.
- 3) 신문 보명 밥 먹으면 체홀이여.
- 4) 눈덩 잠자민 저승 강 안 좋다.
- 5) { 한명 말명(하는듯 마는듯)
 { 좋으명 말명(좋은듯 마는듯)
 { 가명 오명(가면서 오면서)
- 6) { 강박 왕박(가서 보고 와서 보고)
 { 생살 물만 적적 올리꼭.(생살 물만 적적서 올리고)

1), 2)는 後行節의 時制가 과거, 현재, 미래로서 [-past]를 지닌 先行節과 자연스럽게 호응되는 例이다. 1)은 습관적인 동작이며 2), 3)은 선행동작과 후행동작이 시간상의 전후관계를 결정짓기 어려운 동시성을 지니며 4)는 본 方言의 속담으로서 言衆들에게는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例이다. 5)는 동작·상태의 나열, 6)은 동작의 반복을 보여 준다.

위와 같은 경우의 언어 표현에 있어서는 모든 時間領域에 걸쳐 사용되기 때문에 基準時點을 설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어느 한 위치에 지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5.2의 경우는 시간

을 초월하는 不定時를 인정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5.3 -(으)난은 동작연속 접미사에 꼭 들어 맞지 않는 형태소이기는 하지만 후행동작·상태에 대해서 선행동작이 시간적인 원인이 되므로 이들 두 동작간의 時區間을 고려할 수 있다.

예컨대

1) 경 ㄹ러부난 가뱌데다. (그렇게 말해 버리니까 가버립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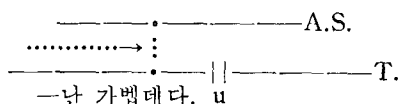
2) { 육 먹으난 울엄수께. (육먹으니까 울고 있지요.)
→ 육 먹얼 울엄수께.

3) { 재미어서부난 가쿠다. (재미가 없으니까 가겠읍니다.)
→ 재미어설 가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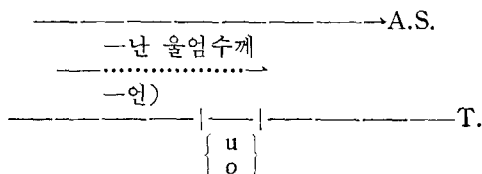
1)~3)에서 1)을 제외하고는 先行節의 -(으)난을 -안(언)으로 대치하여도 문법적이 된다. 그 이유는 ‘-아서’의 의미가 동작 결과의 유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³ 그래서 본 方言 言衆들이 선행동작을 일단, 후행동작 이전에 형성되었다고 인지하고 A형인 -(으)난을 -안(언)으로 대치시켜 사용해도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先行節의 동작이나 상태를 發話時 기준의 [+past]이나, 後行節動作時 기준인 [+past]이냐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1)을 그림으로 그려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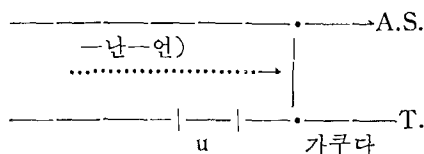


2)는



로 할 수 있어서 4와 5.1의 규칙을 만족시키지만

3)은



와 같이 發話時를 기준으로 하는 [+past]인 A형이 [-past] 영역에 위치하기도 한다.

³ ‘-아서’의 相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그것이 완료, 결과, 지속相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

⁴ -(으)난이 -안(언)으로 대치되는 동사류의 의미자질이 [+state]이므로 “이루어지서 그렇게 된 상태”(남기심 1978:73)에서 後行動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發話時 이후의 영역에 위치한다 할지라도 A형을 쓰는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유전속접미사인 —(으)난의 時制基準時點은 發話時보다는 後行節動作時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보편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⁴

6. 동작연속接尾辭의 形態素 분석의 문제. 이강에서 살피 온 본 方言의 A형과 B형의 형태소들은 영어의 The lady who was singing in the room과 같은 문장에서 was가 be 동사의 과거시제이며 singing은 진행형이라는 時制와 相의 분석이 가능한 것처럼 —ㄴ과 —ㅇ은 따로 분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時制와 관계되는 이들이 배합되는 형태소들의 경우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또 분석을 한다면 형태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인 이들 접미사들의 형태소는 時制와 相을 확연하게 나눌 수 없는(未分化) 그 둘의 혼합체이다(김석득 1970:112). 따라서 본고에서는 —ㄴ/—ㅇ을 중심으로 한 時制만 고찰했으나 앞으로는 이들 接續接尾辭를 한 단위로 하여 時制·相의 혼합자질로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7.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濟州方言의 動作連續接尾辭에서 첫째 —ㄴ/—ㅇ의 대립형이 時制上에서 매우 규칙적임을 보았고, 둘째 이 규칙에서 제외된 불규칙적인 현상 속에서 또 다른 규칙성을 보아왔다.

이들 종합해 보면 첫째 —ㄴ/—ㅇ은 話者의 發話時 현재 —ㄴ은 [+past], —ㅇ은 [-past]의 엄격한 대립을 보이며, 둘째 先行節이 [+past]이면 後行節 역시 [+past]로서 이에 호응한다. 셋째 先行節이 [-past]이면 後行節 역시 [-past]로서 이에 호응한다.

그외에 이들 대립쌍은 發話時 영역 내에서는 시로 혼용되며 동격의 습관, 동시성, 나인, 반복 등에는 後行節의 時制에 관계없이 A형을 쓴다.

참 고 문 헌

- 강정희. 1978. 濟州方言의 時相研究. 梨花語文論集2輯. 梨花語文學會. 141-155.
 김석득. 1974. 한국어의 시간과 시상. 한불연구 1. 연세대학교 한불문화연구소. 97-145.
 남기심. 1978. 國語文法の 時制問題에 關한 研究. 國語學研究選書 6. 塔出版社.
 이승녕. 1960. 濟州道 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國語學論攷. 東洋出版社.
 진성기. 1976. 南國의 民譚. 螢雪出版社.
 현평효. 1974. 濟州方言의 定動詞語尾 研究 (박사학위 논문).
 Bull, W.E. 1968. Time Tense and The Verb. 3rd. ed.. (UCPL) Vol. 9.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yons. J. 1968.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On the Tense of Conjunctive Suffixes of Cheju Dialect

Chunghee Kang

The purpose of this general survey is to show the role of the conjunctive suffixes in

the tense of Cheju dialect.

As a start, let us divide them into two patterns. They can be divided into reason and act-sequence suffixes according to their functions. From these suffixes, I found two tense forms, such as -n and -n̄; the former has [+past] and the latter has [-past]. I would thus like to make a few rules relating the conception of the time of the native speaker with the tense system.

First, the contrast of [+past] to [-past] is explained by the time of utterance being 'now'.

Second, if the preceding conjunction involves [+past], the final conjunction will involve [+past].

Third, if the preceding conjunction involves [-past], the final conjunction will involve [-past].

But it should be noted here that the rules given above do not pertain to the aspect in that sentence. Also there are some exceptions; for example: 1) a pair of [+past] and [-past] is used irregularly for the time of utterance, 2) when the feature of the preceding conjunction is [+habit], [+truth], [+simultaneous] or [+repetition], it is used extensively for the whole time.

In this paper, I have only discussed tenses, but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with respect to tense-aspect remains to be explored in the future.

12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문리대학 국문과

(접수: 1978. 11. 5)